

# 바람직한 기부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며



우 리나라는 예로부터 환난상휼의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를 돕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서로 구제하는 다양한 긴급 부조 활동과 향약, 두레, 계, 품앗이와 같이 각 마을 단위로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부조 활동들이 있었다. 이러한 활동들이 시간이 흘러오면서 뜻과 내용이 조금씩 변하면서 오늘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소위 오늘날 이야기하는 '기부'나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 문화에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현재 각국의 기부문화는 성숙한 시민사회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로 사용된다. 선진국일수록 국가권력과는 독립된 상태에서 다양한 기부조직들이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진다


기부가 일상화되어있는 서구 국가에서는 개인 기부가 전체 모금의 80%를 넘는 반면, 우리나라는 IMF 이후 기부 문화가 정착되어 70% 이상이 기업에 의존하고 있다. 전경련의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이 경상이익의 1% 이상을 사회공헌 활동에 쓰고 있고 5% 이상 지출하

는 기업도 30여 곳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기업 이미지는 과거 투명하지 못한 운영과 변칙증여 등에 의해 선행이 가려져 안타깝게도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개인 기부는 아직도 제한적인 사람들에 의해 비정기적이며, 시기도 연말연시에 집중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부문화가 최근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과거 외국 원조에 의존하던 사회복지기관들이 부족한 정부 보조금을 보충하기 위한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시작한 이래 모금 규모와 내용에서 많이 발전했다. 기부금액의 규모가 선진 외국에 비해 아직 작지만 기부활동 참여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와 같이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는 현대적 의미의 기부활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짧은 기간이지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룬 것이 사실이다. 우리 사회를 보다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원동력으로서 기부활동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언론, 모금기관, 시민들 모두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기부문화는 기부자와 수혜자가 윈-윈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할 때 발전하는 것으로 기부를 자선이 아니라 생활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사회복지시설, 기관에서도 기부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이들 기부자들이 믿고 기부할 수 있도록 기부처들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모니터하고 그 정보를 기부자들에게 제공하는 시스템과 함께 기부자들이 의미를 가지고 쉽게 기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기부활동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부자들의 노력이 존중되고, 격려되는 문화가 형성되어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우리사회에 건강한 기부문화가 일상적인 생활문화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글: 전상원 \_ 경기도 연수사회복지관 부장